

표상적 존재론을 넘어서

구조적 공명, 관계적 개별성, 그리고 安自然의 수행철학

이종선
(사) 동서지행포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류세와 알고리즘적 예측 체제가 드러내는 현대 문명의 위기를, 세계를 독립된 객체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고 이를 표상·예측·통제하려는 ‘표상적 존재론(representational ontology)’의 한계와 관련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J. Varela)의 발제적 인지(enactive cognition)와 용수(Nāgārjuna)의 중관(Madhyamaka)을 비교하고, 양자의 관계를 ‘구조적 공명(structural resonance)’으로 규정한다. 구조적 공명은 역사적 영향이나 개념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 대응성, 논리구조 대응성, 차이 보존성이라는 세 조건 아래 서로 다른 전통 사이의 제한적 대응을 판정하는 비교철학적 절차이다. 본 연구는 특히 바렐라의 『체화된 마음』에 나타난 ‘근거없음(groundlessness)’과 중관의 직접적 대화를 텍스트적 출발점으로 삼아 작동적 폐쇄와 무자성 사이의 철학적 긴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양자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 구조적 공명을 기술하기 위한 비교철학적 중간개념으로 ‘관계적 개별성(relational individuality)’을 제안한다. 이어 무자성에서 윤리적 당위가 직접 연역되지 않음을 전제로, 자기집착의 탈중심화와 수행적 훈련을 통해 반응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수행적 귀결(performative consequence)’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찰을 안기(安己)-안인(安人)-안자연(安自然)의 삼중 수행구조로 확장한다. 안자연은 새로운 형이상학이 아니라 자기형성, 대인적 반응성, 생태적·행성적 공동발생을 연결하는 개념적 탐침이다.

주제어: 구조적 공명, 관계적 개별성, 안기, 안인, 안자연, 용수, 바렐라, 중관, 발제, 근거없음, 무자성, 반응성 윤리

1. 들어가는 말: 표상 이후의 철학은 가능한가

현대 문명은 세계를 표상하고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사회현상을 통계적으로 분류하며 인간의 행동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능력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중요한 성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상(representation) 자체를 폐기해야 할 오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표상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방법에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설명하는 기본 틀로 상승할 때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표상적 존재론(representational ontology)’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표상적 존재론은 현실을 이미 완성된 독립적 객체들의 집합으로 상정하고, 충분한 정보와 적절한 방법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원칙적으로 충분히 기술·예측·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을 가리킨다.¹⁾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을 외부 세계에 대한 내부 표상을 조작하는 정보처리 체계로 보는 계산주의(cognitivism), 행정과 거버넌스에서는 복잡한 사회와 자연을 가독성 있는 범주로 환원하는 기술관료주의, 디지털 기술에서는 과거의 데이터 패턴을 통해 미래의 행동과 사건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려는 알고리즘적 합리성이다. 드레퓔스(Hubert L. Dreyfus)는 계산주의가 인간의 맥락 의존적 노하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제임스 스콧(James C. Scott)은 국가의 가독성(legibility)을 높이려는 기획이 실제 사회와 생태계의 복잡성을 빈곤한 행정 범주로 환원할 위험을 지적했다.²⁾

인류세의 조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지구 시스템에는 비선형적 피드백, 역치(threshold), 다중 인과관계와 비가역적인 체제 전환이 존재한다.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직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기술하고 예측하려는 지구 시스템의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그 내부의 행위자이며, 인간의 표상·판단·소비·기술적 개입 자체가 다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장은 “세계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강한 명제가 아니다. 보다 제한적으로 말하면, 복잡하고 공동발생적인 현실에서 표상·예측·통제는 세계와 관계 맺는 유일하거나 충분한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철학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구축하는 능력만큼, 세계의 변화와 타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가?

본 연구는 이 질문을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발제적 인지와 용수의 중관 사이의 비교를 통해 탐구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두 전통을 하나의 관계론적 형이상학으로 통합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전통이 독립적 실체성과 관계적 의존성, 개별성과 관계성이라는 긴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비교하고, 그 제한적 대응으로부터 현대 수행철학을 위한 개념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
- 1) Francisco J. Varela,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Cambridge, MA: MIT Press, 1991), 특히 인지주의와 표상주의에 대한 비판 참조. 본 연구의 ‘표상적 존재론’은 이들의 representationalism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거버넌스와 알고리즘적 예측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사용하는 분석 범주이다.
 - 2) Hubert L. Dreyfus, *What Computers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New York: Harper & Row, 1972); James C. Scott,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3) Will Steffen et al., “Planetary Boundaries: Guiding Human Development on a Changing Planet,” *Science* 347, no. 6223 (2015): 1259855; Dipesh Chakrabarty,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

2. 구조적 공명: 차이를 보존하는 비교

바렐라와 용수를 비교하는 작업에는 처음부터 방법론적 위험이 따른다. 현대 인지과학과 고대 인도 중관철학은 역사적 맥락, 문제의식, 개념적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질적인 전통의 비교는 대체로 세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 첫째는 영향사적 환원이다. 바렐라가 실제로 불교와 대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대 발제주의를 중관의 단순한 역사적 계승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둘째는 표면적 유사성의 나열이다. 연기와 구조적 결합, 무아와 자생성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각 개념이 속한 철학적 문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셋째는 해석학적 흡수이다. 한 전통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다른 전통 전체를 재해석할 경우 비교는 쉽게 한쪽을 다른 쪽의 하위 범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구조적 공명(structural resonance)’이라는 비교 방법을 제안한다. 구조적 공명은 두 전통이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논리적 운동 사이에 제한적인 대응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는 문제 대응성(problem correspondence)이다. 두 전통이 역사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 다른 문제설정 안에서도 비교 가능한 철학적 긴장이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그것은 “개별성은 관계적 의존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둘째는 논리구조 대응성(structural correspondence)이다.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체하는 논리적 운동이 일정한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차이 보존성(difference preservation)이다. 정당한 비교는 무엇이 대응하는지만 아니라 어디에서 대응이 멈추는지도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구조적 공명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공명은 차이 없는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보존한 채 발견되는 구조적 대응이다. 이 세 번째 조건은 특히 중요하다. 비교의 질은 발견한 유사성의 수가 아니라 차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적 대응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이 세 조건이 비교자의 해석적 판단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공명은 자연과학의 반복 실험처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 재현 가능성은 모든 연구자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제3자가 동일한 텍스트와 자료를 놓고 (1) 비교 가능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2) 대응한다고 제시된 논리구조가 성립하는지, (3) 중요한 차이와 비대응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구조적 공명의 목적은 해석적 판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공개적 비판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3. 근거없음과 관계적 개별성: 바렐라와 용수

3.1 발제적 인지와 근거없음

바렐라, 톰슨, 로쉬의 『체화된 마음』(*The Embodied Mind*)에서 불교는 장식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 특히 제10장 「중도(The Middle Way)」에서 저자들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양극단을 검토하면서 중관과 ‘근거없음(groundlessness)’을 논의의 중심에 배치한다.⁴⁾

이 사실은 본 연구의 방법론에 중요하다. 바렐라와 중관 사이의 비교가 현대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된 유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렐라 자신이 중관과의 직접적인 철학적 대화를 수행했다는 텍스트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렐라의 발제적 인지(enactive cognition)는 인지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외부 세계의 내부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유기체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세계를 발제(enact)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가 세계를 마음대로 만들어 낸다는 주관적 구성주의를 뜻하지 않는다. 환경은 유기체에게 저항하고 섭동하며 가능한 행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발제주의는 이 점에서 객관주의적 실재론과 주관적 구성주의의 양극단을 피하려 한다.⁵⁾

그 생물학적 배경에는 자생성(autopoiesis) 개념이 있다. 자생 체계는 자신의 구성요소를 재생산하는 조직적 네트워크이며, 그 작동은 일정한 의미에서 폐쇄되어 있다.⁶⁾

그러나 여기서 ‘폐쇄’의 의미는 신중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조직적 자기준거성은 존재론적 자기충족성이 아니다.

작동적 폐쇄(operational closure)는 유기체가 환경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체계를 구성하는 작동들이 서로를 조건 짓고 재생산한다는 조직적 순환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살아 있는 체계는 환경과 지속적으로 구조적 결합(structural coupling)을 이루며 변화한다. 따라서 바렐라의 자생 체계는 관계로부터 독립하여 먼저 완성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조직적 차이를 유지하는 체계이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더 필요하다. 바렐라가 사용하는 ‘근거없음’과 중관의 무자성(niḥsvabhāvatā)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무자성은 어떠한 존재도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스스로 성립하는 자성을 갖지 않는다는 중관의 분석적·해체적 명제이다. 반면 『체화된 마음』에서의 근거없음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모두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인식론적 토대를 내려놓고 인지와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실존적·인식론적 방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개념적 동일성이 아니라 비토대성(non-foundationality)을 둘러싼 제한적 구조 공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4) Varela, Thompson, and Rosch, *The Embodied Mind*, chap. 10, “The Middle Way,” 217-234. 이 장에서 저자들은 Nāgārjuna와 Madhyamaka, 두 진리, 그리고 groundlessness를 명시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바렐라-중관 비교는 단순한 후대적 유비가 아니라 바렐라 자신의 명시적 불교철학적 관여를 텍스트적 출발점으로 갖는다.

5) Varela, Thompson, and Rosch, *The Embodied Mind*, 특히 chaps. 9-11; Evan Thompson,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s of Mind*(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6) Francisco J. Varela, *Principles of Biological Autonomy*(New York: North Holland, 1979); Humberto R. Maturana and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Dordrecht: D. Reidel, 1980).

3.2 용수의 연기·무자성·가명

용수의 중관에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성(svabhāva)이다. 자성이란 다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성립하는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용수는 연기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의 자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론』 24장 18송은 연기·공·가명·중도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연기된 것은 공하며, 의존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중도라는 것이다.⁷⁾

공(sūnyatā)은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무주의적 선언이 아니다. 부정되는 것은 현상의 관습적 기능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상정되는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이다. Garfield와 Westerhoff가 강조하듯, 중관의 핵심은 현상의 기능적·관습적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성적 실체로 이해하는 방식을 해체하는 데 있다.⁸⁾

따라서 다음 두 명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개별자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가명(prajñapti)은 이러한 긴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사물은 관습적으로 지시되고 기능하며 인과적 관계 속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한 기능적 실재성이 독립적인 자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3.3 작동적 폐쇄와 무자성의 구조적 공명

이제 본 연구의 중심 난제에 도달한다.

바렐라의 작동적 폐쇄는 하나의 체계가 자신의 조직적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용수의 무자성은 독립적 존재 근거를 해체한다. 그렇다면 작동적 폐쇄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자성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바렐라 내부의 논리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자생 체계는 조직적으로 자기준거적 이지만 환경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성은 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조직적 자기유지이다.

둘째, 중관 내부의 논리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관은 자성을 부정하지만 관습적 개별성과 기능적 차이를 제거하지 않는다. 가명은 기능적 차이와 무자성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두 전통의 차이를 보존해야 한다. 바렐라는 생명체의 조직과 인지 작동을 설명한다. 용수는 자성 개념과 그것에 기초한 존재 이해를 해체한다. 따라서 작동적 폐쇄는 무자성이 아

7) Nāgārjuna, *Mūlamadhyamakakārikā* 24.18. 본문에서는 특정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연기·공·가명·중도의 관계를 논지에 맞게 요약하였다. 영어 번역 및 해설은 Jay L. Garfield, trans., *The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를 참조하였다. 이제(二諦)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는 MMK 24.8-10 참조.

8) Garfield, *The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특히 제24장 해설; Jan Westerhoff, *Nāgārjuna's Madhyamaka: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본 연구는 이들의 해석을 따라 용수를 긍정적 관계존재론의 수립자라기보다 자성적 존재 이해를 해체하는 철학자로 읽는다.

니며, 무자성은 자생성 이론이 아니다.

그럼에도 넷째, 제한적인 구조적 공명은 판정할 수 있다. 두 전통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개별성의 실체화와 개별성의 소거라는 두 극단을 동시에 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관계적 개별성(relational individuality)’이라는 비교철학적 중간개념을 제안한다.

관계적 개별성이란 의존적 관계망 안에서 일정 기간 기능적·조직적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그 일관성을 독립적이고 불변하는 본질에 의존하지 않는 개별성을 뜻한다.

강물의 소용돌이는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다. 소용돌이는 하나의 패턴으로 식별되고 일정한 형태와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을 구성하는 물은 끊임없이 교체되며, 물의 흐름과 주변 조건이 사라지면 소용돌이도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이 비유는 논증 그 자체가 아니라 앞선 분석을 설명하는 예시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적 개별성’ 자체도 새로운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용수와 바렐라를 종합한 제3의 존재론이 아니라 두 전통 사이에서 확인되는 제한적 공명을 기술하기 위한 비교철학적 중간개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역투사는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용수가 현대적 관계적 개별성 이론을 이미 주장했다.”

“바렐라의 생물학이 중관의 무자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둘 다 본 연구의 주장이 아니다.

앞서 제시한 세 조건으로 이를 정리하면 보다 명료하다. 문제 대응성은 개별성과 관계적 의존성 사이의 긴장에서 성립한다. 논리구조 대응성은 독립적 실체화와 개별성의 소거라는 양극단을 피하면서 기능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차이 보존성은 바렐라가 생명체의 조직적 지속을 설명하는 반면, 용수는 자성적 존재 이해를 해체한다는 차이를 유지함으로써 확보된다.

4. 존재 이해에서 윤리로: 수행적 귀결

그러나 관계적 존재 이해를 인정한다고 해서 특정한 윤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매력적 이지만 존재에 관한 명제에서 윤리적 당위를 곧바로 연역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 불교윤리학의 논쟁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Damien Keown은 불교윤리를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와 비교하면서 수행과 인간적 탁월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Charles Goodman은 불교윤리를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한다.⁹⁾ 서로

9) Damien Keown,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London: Macmillan, 1992), 193-227; Charles Goodman, *Consequences of Compassion: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of Buddhist Ethic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Keown은 불교윤리를 덕 윤리와 비교하는 반면, Goodman은 결과주의적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는 어느 한 입장을 채택하기보다 이 논쟁을 존재론에

다른 규범윤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기나 무자성으로부터 하나의 규범윤리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 연역을 거부한다.

연기·무자성 → 윤리적 의무 대신 ‘수행적 귀결(performative consequence)’이라는 매개구조를 제안한다.

무자성의 통찰 → 자기집착의 탈중심화 → 타자와 상황에 대한 개방성 → 반복적 수행 → 반응성의 형성

첫째,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세계와 타자를 자기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환원하기 쉽게 한다.

둘째, 무자성의 통찰은 특정한 윤리적 명령을 직접 산출하지 않지만 자기중심적 관점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흔든다.

셋째, 이러한 탈중심화는 타자와 상황을 기존의 고정된 범주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넷째, 그러나 가능성은 아직 덕이 아니다. 무자성에 대한 지적 이해만으로 자비롭고 책임 있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복적인 수행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바렐라의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가 중요하다. 바렐라는 윤리적 행위를 추상적 규칙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일로 환원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알아차리고 행할 수 있는 체화된 노하우와 실천적 지혜의 문제로 이해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의 주장은 “공이 윤리를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자성은 고정된 자기중심성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반응성이 형성될 수 있는 수행적 공간을 연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가 말하는 ‘반응성 윤리(ethics of responsiveness)’는 의무론이나 결과주의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완결된 규범윤리 체계라기보다, 규칙의 적용과 결과의 계산에 선행하는 수행적 능력에 주목한다.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추상적 범주보다 실제 관계망과 구체적 상황을 우선하여 살피는 국소적 주의(local attention)이다. 둘째는 기존 범주를 성급히 적용하지 않고 상황이 드러날 시간을 허용하는 수행적 기다림(performative waiting)이다. 셋째는 관계망 안에서 적절한 개입의 위치와 방식을 판단하는 분별적 반응성(discerning responsiveness)이다.

따라서 존재 이해와 윤리 사이의 관계는 존재론 → 규범이라는 직접적 연역이 아니라, 통찰 → 탈중심화 → 수행 → 형성 → 반응이라는 수행적 매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5. 안기-안인-안자연: 반응성의 세 지평

서 특정 규범윤리가 자동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사용한다.

10) Francisco J. Varela,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앞선 논의를 현대의 수행철학으로 번역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안기(安己)-안인(安人)-안자연(安自然)의 세 개념을 제안한다. 이들은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는 범주가 아니다. 관계적 개별성과 반응성의 통찰이 자기, 타자, 자연이라는 서로 다른 지평에서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개념적 탐침(conceptual probes)이다.

5.1 안기: 관계적 자기의 역동적 안정성

안기는 자기중심적 평안이나 자아의 강화가 아니다.

관계적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의 제거도 자아의 절대화도 아니다. 타자에게 책임 있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기 안정성과 판단의 중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심이 불변하는 본질로 실체화되면 타자의 요구는 자기 기준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안기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치를 절대화하지 않는 역동적 자기 안정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렐라의 언어와 비교하면 이는 환경과의 구조적 결합 속에서 조직적 차이를 유지하는 역동성과 공명한다. 중관과 제한적으로 비교하면 관습적 개별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자성으로 실체화하지 않는 태도와 대응한다.

5.2 안인: 타자의 차이에 응답하기

안기에서 곧바로 안자연으로 이동하면 개인과 행성 사이의 사회적·대인적 층위가 사라진다. 이를 매개하는 개념이 안인(安人)이다.

『논어』 「헌문」의 “修己以安人”과 “修己以安百姓”은 자기 수양이 자기완성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는 관계적 방향을 보여준다.¹¹⁾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안인은 타인을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온정주의적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인이란 타자를 자기 계획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타자의 요구와 차이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적 능력이다. 바렐라의 언어로 비교하면 이는 추상적인 규칙보다 구체적 상황에 적절히 응답하는 윤리적 노하우와 연결된다. 중관적 관점과 제한적으로 비교하면, 고정된 자기와 타자의 실체화를 완화함으로써 자비(karuṇā)의 가능성을 여는 수행적 공간과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안인을 곧바로 중관의 자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유교의 수기-안인은 관계와 역할 속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공동체적 조화를 지향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반면 중관은 그러한 인격과 관계 자체를 독립적 자성을 가진 것으로 실체화하는 사고를 해체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안인은 두 전통을 하나의 관계윤리로 종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형성이 타자의 차이와 요구 앞에서 시험되어야 한다는 유교적 방향성과 고정된 자기-타자 표상을 완화하는 중관적 통찰 사이의 제한적 공명을 실천적 언어로 재구성한 것이다.

안기가 반응할 수 있는 자기를 형성하는 일이라면, 안인은 그 반응성이 실제 타자와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는 장이다.

11) 『論語』 「憲問」 14.42의 “修己以安人” 및 “修己以安百姓” 참조. 본 연구의 안기-안인-안자연은 이 고전적 표현을 그대로 복원한 역사적 유교 체계가 아니라, 수기-안인의 관계적 방향을 현대의 생태·행성적 문제까지 확장하여 재구성한 수행철학적 제안이다. 특히 안자연은 고전 유교에 귀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본 연구의 개념적 탐침이다.

5.3 안자연: 행성적 공동발생

안자연은 안인의 관계적 지평을 인간 이외의 생명과 생태계, 그리고 행성적 조건으로 확장한다. 여기서 ‘안(安)’은 정지나 무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체와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안자연이 지향하는 안정은 변화가 없는 정적 평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관계망이 붕괴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에 응답할 수 있는 역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이다.

안자연은 자연을 인간이 외부에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객체로 이해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는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생태적·사회적·기술적 관계망의 참여자이다.

그러므로 안자연은 자연을 인간이 ‘안정시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생태적 관계망의 변화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수행적 지향이다. 안기-안인-안자연은 선형적인 상승단계가 아니다. 安己 → 安人 → 安自然의 구조는 자기에서 타자, 타자에서 자연으로 단순하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순환적으로 조건 짓는 세 지평이다. 안기 없는 안인은 자기상실적인 반응으로 흐를 수 있고, 안인 없는 안자연은 구체적 타자와 사회적 관계를 우회한 추상적 생태주의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안자연 없는 안기는 개인적 안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행성적 조건과 분리될 위험이 있다.

초기 구상에서는 화염의 법계연기와 인드라마를 이러한 행성적 관계성을 상상하기 위한 자원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바렐라와 중관 사이의 구조적 공명을 엄밀하게 판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화염을 독립적인 비교축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화염의 철학적 중요성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관의 무자성과 화염의 긍정적 법계론을 하나의 관계존재론으로 성급하게 통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한이다.¹²⁾

6. 디지털 조건과 결론

이 논의는 오늘날의 알고리즘적 조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단순히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토큰 기계”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 AI 시스템 역시 인간의 언어, 데이터 생산, 사회적 제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제한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 자체가 바렐라가 생명적 인지의 조건으로 설명한 자생적 작동 폐쇄와 유기체적 구조 결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계적 예측 능력의 향상을 곧바로 생명적 의미생성(sense-making)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안자연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AI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다. 기술이 인간과 공동체의 반응-능력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하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방향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예측의 절대화보다 불확실성과 이상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둘째, 인간 판단의 대체보다 인간의 분별력을 증강하는 기술이다. 셋째, 보편적 모델의 일방적 적용보다 지역적·위치적 지식과의 결합이다. 이는 완성된 기술윤리의 체계가 아니라 안자연의 수행철학에서 도출되는 방향적 기준이다.

12) 화염의 법계연기와 인드라마는 관계적 세계를 상상하는 중요한 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중관과 바렐라의 구조적 공명에 분석을 집중하기 위해 화염을 독립적인 비교축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중관의 무자성과 화염의 긍정적 우주론을 하나의 관계존재론으로 성급하게 통합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한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방법론적 기여이다. 구조적 공명을 문제 대응성, 논리구조 대응성, 차이 보존성이라는 세 조건으로 정식화함으로써 단순한 유사성 비교와 해석학적 흡수 사이에서 통제된 비교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개념적 기여이다. 작동적 폐쇄와 무자성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 제한적 대응을 기술하기 위한 비교철학적 중간개념으로 ‘관계적 개별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독립적 실체성과 개별성의 완전한 소거 사이에서 관계적이면서도 책임 가능한 개별성을 사고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윤리학적 기여이다. 무자성에서 윤리를 직접 연역하지 않고 통찰-탈중심화-수행-형성-반응이라는 수행적 귀결을 통해 존재 이해와 윤리적 형성 사이의 매개를 제시하였다.

넷째, 실천철학적 기여이다. 이러한 통찰을 안기-안인-안자연이라는 자기·타자·행성의 세 수행적 지평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관계적 개별성 자체가 새로운 존재론적 실체로 재실체화될 위험이 있으며, 구조적 공명의 판정 역시 연구자의 해석적 선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또한 무자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실제로 어떠한 수행과 교육을 통해 반응성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자연을 제도·정책·정치경제적 구조로 번역하는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개인의 수행만으로 행성적 위기나 알고리즘적 권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자연은 완결된 철학체계라기보다 하나의 개념적·수행적 탐침으로 남아야 한다.

표상 이후의 철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표상을 폐기하는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표상이 세계보다 작다는 사실을 아는 철학일 것이다.

그 철학에서 개별성은 독립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도 응답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지혜란 미래를 완벽하게 계산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타자와 사건 앞에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안기(安己)는 그 응답을 감당할 자기를 형성하는 일이고, 안인(安人)은 타자의 차이에 응답하는 일이며, 안자연(安自然)은 그 응답의 지평을 우리가 함께 생성하고 있는 세계로 확장하는 일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구조적 공명이라는 비교철학적 방법을 통해 제안하는 표상 이후의 수행철학이다.

참고문헌

- Chakrabarty, Dipesh.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
- Dreyfus, Hubert L. *What Computers Can't Do: A Critique of Artificial Reason*. New York: Harper & Row, 1972.
- Garfield, Jay L., trans. *The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Nāgārjuna's Mūlamadhyamakakārikā*.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Goodman, Charles. *Consequences of Compassion: An Interpretation and Defense of Buddhist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Keown, Damien. *The Nature of Buddhist Ethics*. London: Macmillan, 1992.
- Maturana, Humberto R., and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ordrecht: D. Reidel, 1980.
- Scott, James C.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8.
- Steffen, Will, Katherine Richardson, Johan Rockström, Sarah E. Cornell, Ingo Fetzer, Elena M. Bennett, Reinette Biggs, et al. "Planetary Boundaries: Guiding Human Development on a Changing Planet." *Science* 347, no. 6223 (2015): 1259855.
- Thompson, Evan.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s of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Varela, Francisco J. *Principles of Biological Autonomy*. New York: North Holland, 1979.
- . *Ethical Know-How: Action, Wisdom, and Cogn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Varela, Francisco J., Evan Thompson, and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Westerhoff, Jan. *Nāgārjuna's Madhyamaka: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論語』「憲問」.

Abstract

Beyond Representational Ontology: Structural Resonance, Relational Individuality, and the Performative Philosophy of Ān Zìrán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onal ontology*—the tendency to conceive reality as a collection of independently constituted objects that can, in principle, be adequately represented, predicted, and controlled—in light of the Anthropocene and contemporary algorithmic regimes. It brings Francisco J. Varela's enactive cognition into comparison with Nāgārjuna's Madhyamaka through a method termed *structural resonance*. Rather than claiming historical influence or conceptual identity, structural resonance is governed by three criteria: problem correspondence, structural correspondence, and difference preservation.

Taking Varela's explicit engagement with Madhyamaka and *groundlessness* as its textual point of departure, the study examines the apparent tension between operational closure and the Madhyamaka critique of *svabhāva*. It proposes *relational individuality* as an intermediate comparative concept describing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continuity without ontological self-sufficiency. This concept is not intended as a synthesis of enactivism and Madhyamaka, but as a heuristic device for identifying their limited structural resonance while preserving their philosophical differences.

The study further argues that emptiness does not deductively generate ethical norms. Rather, insight into non-self-subsistence may loosen self-fixation and open a performative space in which responsiveness can be cultivated through sustained practice. This movement—insight, decentering, practice, formation, and response—is described as a *performative consequence* rather than a logical entailment.

Finally, the study develops the triadic framework of *Ān Jǐ*(安己), *Ān Rén*(安人), and *Ān Zìrán*(安自然), 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relational self-formation, interpersonal responsiveness, and ecological-planetary responsiveness. *Ān Zìrán* is proposed not as a new metaphysical system but as a conceptual probe for exploring forms of life adequate to ecological and digital conditions. The study thereby contributes to comparative methodology, the conceptualization of relational individuality, the performative mediation between ontological insight and ethical formation, and a practical philosophy of planetary responsiveness.

Keywords: Structural Resonance, Relational Individuality, *Ān Jǐ*, *Ān Rén*, *Ān Zìrán*, Enaction, Madhyamaka, Groundlessness, Operational Closure, Emptiness, Ethics of Responsiveness